

영광 ‘고도도’서 조선 봉수군마을 터 첫 확인

생활 공간 유적 국내 첫 사례
‘호구총수’ 기록 거주지 규명
계단식 석축·우물터 등 발견
서남해 방어 핵심 군사 유적

조선시대 봉수군의 실제 거주지로 추정되는 유구가 영광 고도도 봉수 인근에서 발굴되면서 문헌 속에만 존재했던 ‘봉수군마을’의 실체가 시굴조사를 통해 처음으로 드러났다.
19일 영광군에 따르면 최근 열린 ‘영광 고도도 봉수 봉수군마을 시굴조사 자문회의’에서 ‘호구총수’(1789년)에 기록된 봉수군(烽燧軍)의 거주

지로 전해지는 ‘고도도 봉수 봉수군마을(봉수동) 터’가 조사를 통해 처음으로 규명됐다.
이번 시굴조사는 2024년 학술지표조사 과정에서 문헌 기록과 생존자 증언을 통해 유적의 성격이 포착되면서 이를 보다 명확히 밝히기 위해 추진됐다.
조사단은 영광 고도도 봉수 남쪽으로 30분가량 떨어진 산지 말단부에 2개의 조사구를 설치해 살핀 결과 조선시대 건물지로 보이는 석렬(石列), 8~9단 규모의 계단식 석축, 현재까지 물이 흐르는 우물터 등을 찾아냈다.
이는 해당 장소가 단순히 봉수 관련 흔적에 그치지 않고 실제 생활 터전으로 기능했음을 보여주는 고고학적 근거로 평가된다.
특히 조사 지점이 고도도 봉수로 이어지는 봉



고도도 봉수 봉수군 마을 조사지역 조사 후 원경(왼쪽)과 마을 내 우물 터.



〈영광군 제공〉

수로의 시작점에 위치해 있고, 조선 시대 문헌에서도 이 일대가 ‘봉수동(烽燧洞)’으로 기록돼 있어 봉수를 관리하던 봉수군의 집단 거주지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조사단의 분석이다.

영광 고도도 봉수는 조선시대 제5로 직봉노선에서 23번째 연변봉수로, 여수 돌산도 봉수에서 시작해 서울 남산(양천 개화산) 봉수까지 이어지는 서남해안 방어망의 핵심 통신·군

사 유적이다.
봉수군은 봉수대에서 횃불로 신호를 전달하거나 후방을 담당하던 군사로, 1봉수당 약 100명이 배치돼 5명이 5일씩 돌아가며 근무하는 체계로 운영됐다.
이번에 드러난 봉수군마을 유적은 조선시대 봉수군의 실제 생활 공간을 보여주는 국내 첫 사례로, 봉수 운영체제와 봉수군의 사회·경제적 기반을 복원하는 데 중요한 학술적 자료로 주목받고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앞으로 봉수군 마을과 봉수로에 대한 역사적 학술조사를 이어가고, 시작(제5로 직봉-영광 고도도 봉수 유적) 지정구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김동규 기자



진도 청정 농수산물 일본 식탁에 오른다

郡-재일본규슈한국인聯 MOU
전북·곱창김 등 100만달러 규모

진도군은 “최근 재일본규슈한국인연합회와 ‘진도 청정 농수산물 수출 협약식’을 열고 일본 시장 공략을 위한 협력 관계를 공식화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 이번 협약으로 진도산 ▲전복 ▲미역 ▲곱창 김 ▲쌀 등 약 100만달러 규모의 농수산물이 일본으로 수출될 예정이다.
군은 이를 계기로 일본 현지 유통망과 연계를 강화하며 본격적인 시장 진출 기반을 다진다는 계획이며, 재일본규슈한국인연합회는 수출 지

원은 물론 진도의 역사·문화 홍보에도 나서 지역 브랜드 가치 확산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앞서 군은 연합회 임원진을 초청해 주요 농수산물 생산 현장을 둘러보며 품질과 생산 공정을 직접 확인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심현수 재일본규슈한국인연합회 회장은 “진도를 방문해 신선한 농수산물과 풍요로운 자연, 따뜻한 인심을 느낄 수 있었다”며 “일본 유통망 확대와 함께 일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진도군 관계자는 “이번 협약이 지역 농어가에 새로운 희망이 되길 바라며 진도 농수산물이 일본에서도 신뢰받는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진도=박세권 기자

강진서 자연 속 쉼 ‘힐링 다도, 휴’ 개최

28·29일 백운차실·월남마을 등서
싱잉볼 사운드 등 치유·다도 체험

강진군은 19일 “2025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배달 사업의 일환으로 ‘힐링 다도, 휴(休)’ 프로그램을 오는 28일과 29일 백운차실과 월남마을에서 진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지역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디지털 환경에 지친 현대인이 강진의 자연 속에서 ‘쉼’을 경험하도록 기획됐다.
지난 17일부터 선착순 100명 접수를 받고 있으며, 참가자는 강진군문화관광재단 공식 SNS에 게시된 QR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강진은 다산 정약용이 유배 시절 머물며 차를 가까이하고 깊이 사랑한 지역으로, 다산은 강진

에서 차를 두고 제자들과 나누며 사색을 정리하고 마음을 다스렸다는 기록을 남긴 바 있다.
이번 ‘힐링 다도, 휴(休)’는 다산 정약용이 사랑한 강진의 차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누구나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주요 프로그램은 ▲싱잉볼 사운드·아로마 테라피·퍼스널 컬러 진단을 통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는 ‘테라피 다임’ ▲차와 함께 마을을 걷는 힐링 산책 ‘다담산책’ ▲전통 차 문화를 배우는 ‘다도 체험’ ▲월남마을 숲에서 펼쳐지는 ‘숲속음악회’ 등이다.
김기대 (재)강진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는 “다산 정약용이 사랑한 강진의 차 문화처럼, 이번 프로그램이 참가자들에게 마음을 고요히 하고 에너지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강진의 자연과 전통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힐링 프로그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정영록 기자

“119구급차는 응급환자에게 양보해주세요”

목포소방, 비응급 환자 증가 이송 차질
단순 치통·감기 등 응급 이용 지양 당부

목포소방서는 19일 “최근 119 신고 중 비응급 환자 사례가 늘어나면서 실제 생명이 위급한 환자의 골든타임 확보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구급대원은 비응급 환자의 이송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하지만 신고 내용만으로는 응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비응급 신고 자체에 대한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다.
/목포=정혜선 기자

현행법상 비응급환자 기준은 ▲단순 치통 ▲단순 감기(38℃ 이상 고열·호흡곤란 제외) ▲생체징후가 안정된 단순 열상·찰과상 ▲단순 주치자(강한 지극에도 의식 회복이 없는 경우 제외) ▲만성 질환자의 정기 검진·입원 목적 등이 포함된다.
목포소방은 이 같은 비응급 신고나 허위 신고로 출동할 경우 소방력이 분산돼 실제 위급 환자 이송이 지연되는 등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용호 목포소방서장은 “시민들의 작은 배려가 더 많은 생명을 살리는 데 큰 힘이 된다”며 “비응급 상황에서는 119 대신 의료기관 방문이나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목포=정혜선 기자

“빛으로 수놓는 함평”…겨울빛축제 준비 ‘착착’

오는 28일 개막 엑스포공원 일원
미디어 아트·체험 프로그램 확대
안전·교통대책 등 준비 최종 점검

함평군이 “2025 함평 겨울빛축제” 개막을 앞두고 성공 개최를 위한 막바지 점검에 들어갔다.
19일 함평군에 따르면 최근 군청 소회의실에서 이상익 군수와 강하춘 부군수, 22개 실·과장, 9개 읍·면장, 함평축제관광재단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 함평 겨울빛축제 최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서는 야간경관 조명 연출과 전시·체

험·공연 프로그램 구성, 캐릭터 팝업스토어·푸드트럭·농특산물 판매장 운영 계획 등 축제장 전반의 상황이 논의됐다.
아울러 읍 시가지 상권과의 연계 방안, 방문객 안전 확보와 비상 대응체계 구축, 주차장 확보 등 교통대책까지 실무 점검이 이어졌다.
2025 함평 겨울빛축제는 ‘함평의 밤, 빛의 향연’을 주제로 오는 28일부터 2025년 1월11일까지 45일간 함평엑스포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겨울빛축제는 지난해 첫 행사에서만 8만여명이 방문하며 함평군이 내비대축제·국향대전 등을 통해 다져온 축제 경쟁력을 입증했다.
행사에서는 2025 대한민국 국향대전 축제장을

활용해 ▲이아남 작가의 대형 미디어아트 ‘빛으로 피어낸 겨울, 함평의 인사’ 전시 ▲빛의회전목마·미로정원·천사 조형물 등 야간 경관 조명 연출을 더해 빛과 예술이 공존하는 ‘빛의 테마파크’를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크리스마스 콘서트와 버스킹 ▲마칭밴드 공연 ▲눈꽃 화관·트리 만들기 ▲산타복 체험 등 가족 단위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공연·체험 프로그램도 준비된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함평 겨울빛축제는 빛과 예술, 자연이 어우러진 새로운 겨울 명소가 될 것”이라며 “겨울철 야간관광 활성화를 통해 체류형 관광지를 조성하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김연수 기자



외국인 유학생 40명이 영암 구림마을에서 한복을 입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영암군 제공〉

외국인 유학생 영암 구림마을서 ‘멋과 맛’ 만끽

郡, 문화체험 글로벌 뽀투어 진행
월출소반 한식·한복·도기 등 체험

영암군은 “최근 서울 거주 외국인 유학생 40명을 초청해 ‘호남 명촌 구림마을 문화체험 글로벌 뽀투어’를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뽀투어는 영암 대표 한옥마을이자 전통 문화가 살아있는 호남 명촌 구림마을을 중심으로 외국인들이 한국 전통의 멋과 맛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뽀투어 참가 외국인 유학생들은 ▲월출소반 한식 ▲도기박물관 도기 ▲대한민국 한옥문화비엔날레 한복 ▲목재문화 등을 체험하고 한옥 펜션에 숙박했다.
영암 특산물을 재료로 차려낸 월출소반 한식은 맛과 정성, 철학이 담겨 있다는 평과 함께 호응을 얻었다.
영암도기박물관에서는 흙과 물로 자신들만의 도기를 빚어보고 대한민국 한옥문화비엔날레 행사장에서는 한복을 입고 한옥을 배경으로 사진을 촬영하고, 목재문화체험장에서는 다양

한 게임을 즐겼다.
한옥 처마 아래서 갓과 도포를 입은 유학생들은 인기 에니메이션 ‘케이팝데몬헌터스’의 캐릭터 사자보이즈인 것처럼 포즈를 취하기도 했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이번 글로벌 뽀투어를 구림마을의 한옥과 한국문화를 한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해 유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았다”며 “구림 한옥마을의 역사·문화·경관 자원을 관광과 연계해 호남 명촌의 이름을 세계에 알리겠다”고 말했다.
영암군은 외국인, 청년, 가족 단위 관광객 등이 참여하는 특화 뽀투어를 확대하고, 체류형 관광콘텐츠를 개발해 구림마을의 전통을 세계에 알린다는 방침이다.
/영암=나동호 기자

‘해남군 문예어울림센터’ 건립 착수…내년 개관

툐 연동리 일원에 40억원 투입
창작·생활 등 신한옥 복합공간

해남군이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할 신한옥 형태의 ‘해남문예어울림센터’ 조성에 착수한다.
〈조감도〉 19일 해남군에 따르면 다양한 예술 장르를 아우르는 전국 단위 창작 허브 구축과 생활인구 유입 확대를 위해 해남읍 연동리 일원에 총 40억원을 투입해 해남문예어울림센터를 건립한다.
센터는 연면적 62,580㎡ 규모의 2층 신한옥으로 지어지며, 예술가들이 작업할 수 있는 창작

공간과 숙박을 포함한 ▲생활공간 ▲교육실 ▲사무공간 ▲공유주방 등이 들어선다. 공사는 이달 착공해 2026년 10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된다.
센터 조성이 완료되면 문학레지던시 ‘백련재’와 공립문학관인 땅끝순례문학관을 중심으로 구축된 지역 문화 인프라 위에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이 교류하고 창작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고산 윤선도 유적지가 있는 연동리 일대는 녹우당, 백련재, 고산윤선도유물전시관, 땅끝순례문학관 등 한옥 건축물이 밀집해 있어 역사·문화 경관을 보존하면서도 창작 영감이 풍부한 예술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군은 중견 예술인뿐 아니라 유망 청년 예술가도 적극 유치해 지역 문화예술의 저변을 넓히고, 해남을 남도 예술 창작의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주민에게는 새로운 문화향유 공간을, 예술가에게는 최적의 창작환경을 제공하는 전국적 창작 허브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필용 기자